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만
이



책 길라잡이

교과서 속 주요 “알맹이”를 모아 반복하여 소리 내어 읽어보며 스스로 글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읽기를 배우는 단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읽는 자체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읽기를 자동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읽기가 유창해지고 자동화되면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어휘를 활용하여 읽기 이해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학생은 자연스럽게 배움을 위한 읽기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유창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읽기 유창성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된 학생에게는 읽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하였고,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생활 속 주요 “알맹이”를 모아 반복하여 소리 내어 읽어보며 스스로 글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해 복습이 필요한 읽기 부진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읽기를 통해 읽기의 유창성을 기르고, 유창해진 글 읽기로 글의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생활 속 주요 내용과 관련된 글감을 각 10차시씩 개발하였습니다.



둘째

각 글감에 적용된 읽기 규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여러 음운 규칙을 아래와 같이 쉽게 제시하고 글감에서 적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읽기규칙	내용
경음화	받침 뒤에 ‘ㄱ, ㅂ, ㄷ, ㅌ, ㅈ’가 오면 ‘ㄱ, ㅃ, ㄸ, ㅆ, ㅉ’로 읽어요.
비음화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앞에서 ‘ㅇ, ㄴ, ㅁ’로 읽어요.
ㅎ 탈락	‘ㅎ’ 뒤에 모음이 오면 ‘ㅎ’을 소리 내지 않아요.
연음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격음화	‘ㅎ’과 ‘ㄱ, ㄷ, ㅈ’이 만나면 ‘ㅋ, ㅌ, ㅊ’로 읽어요.



셋째

하나의 지문을 3번 소리 내어 반복 읽어서 읽기 유창성 향상을 도움을 줍니다. 읽기가 어려운 학생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 읽어도 좋습니다.



넷째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제공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상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섯째

프로그램 전과 후 자신의 실력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평가 글감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



오늘의 읽기 규칙

본문 속 적용된 음운 규칙을 쉽게 설명해줍니다.



100~130어절로 구성된 글감이 제시됩니다



스스로 연습한 만큼 표시합니다.

1 글의 내용 간추리기(1)

오늘의 읽기 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ㅌ, ㅊ'가 오면 'ㄱ, ㅃ, ㅌ, ㅆ, ㅈ'로 읽어오.

욕심 → /욕심/

듣거나 /듣거나/ 봅시다 /봅시다/ 찾습니다 /찾습니다/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글을 간추리는 법

듣거나 읽은 내용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을 간추려 쓰면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글을 간추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설명하는 글에서는 먼저 중심 문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중심 문장을 연결해 전체 글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주장하는 글에서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여 간추립니다. 이야기 글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합니다. 사건이 여러 장소에서 일어난다면 장소의 변화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글인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간추려 **봅시다**. 어느 더운 여름에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던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에게 편잔을 듣습니다.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려고 느티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오후가 되어 나무 그늘이 움직이자 총각은 그늘을 따라 영감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총각은 마을 사람들까지 그늘로 데려왔습니다. 영감의 집은 총각과 마을 사람들로 꽉 **찾습니다**.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마을을 떠났고 총각과 마을 사람들은 나무 그늘을 쉼터로 사용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16



공부한 날을 기록합니다.

공부한 날

영양

일일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해 보세요.

- 1) 설명하는 글은 중심 문장을 찾아 글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
- 2) 주장하는 글은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정리합니다. ()

2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시간 어느 더운 여름날

그늘에서 쉬다가 편자를 들은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에게 ()을 삼.

시간 오후

시간이 지나며 나무 그늘이 움직이자 총각은 그늘을 따라 ()으로 들어감.

시간 다음 날

총각이 마을 사람들과 그늘로 찾아오자 욕심쟁이 영감은 ().

3 다음 글을 알맞게 간추린 사람을 고르세요. ()

우리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거나 씻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도 하지요. 그런데 머지않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부족 국가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알아보시다. 양치할 때는 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누칠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 ① 은지: 물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 ② 영미: 물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 ③ 소희: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
- ④ 상우: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많이 갑니다.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킵시다.

내용 확인하기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됩니다. 본문의 내용과 연계하여 풀 수 있는 문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답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맹이 목차

계획을 세우고 지키면서 학교 수업에 맞추어 활용하세요.

순서	글의 제목	음운 규칙	쪽수
	알맹이 시작하기		08~13쪽
1 일차	글을 간추리는 법	경음화	16쪽
2 일차	지도의 요소	연음	18쪽
3 일차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연음	20쪽
4 일차	박물관 가는 날	격음화	22쪽
5 일차	여러 가지 지도	연음	24쪽
6 일차	퇴적암을 만들어요	ㅎ탈락	26쪽
7 일차	느낌을 살려 말해요	경음화	28쪽
8 일차	같은 인천 다른 모습	연음	30쪽
9 일차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서	비음화	32쪽
10 일차	사실과 의견	경음화	34쪽
11 일차	인천의 중심지	경음화	36쪽
12 일차	어떤 씨앗일까?	경음화	38쪽
13 일차	까마귀와 감나무	격음화	40쪽
14 일차	전통시장 답사	경음화	42쪽



교과서 속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해 보자!



순서	글의 제목	음운 규칙	쪽수
15 일차	새싹이 났어요	연음	44쪽
16 일차	파란 물고기	경음화	46쪽
17 일차	인천의 문화유산	연음	48쪽
18 일차	강낭콩 키우기	연음	50쪽
19 일차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경음화	52쪽
20 일차	인천의 자랑 박두성	경음화	54쪽
21 일차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	비음화	56쪽
22 일차	한글의 우수성	경음화	58쪽
23 일차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연음	60쪽
24 일차	용수철저울과 양팔 저울	경음화	62쪽
25 일차	만화 속 인물의 마음	경음화	64쪽
26 일차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경음화	66쪽
27 일차	콩쥐의 심부름	ㅎ 탈락	68쪽
28 일차	학급 규칙 만들기	경음화	70쪽
29 일차	안전한 등갓길 만들기	비음화	72쪽
30 일차	소금장수와 모래	경음화	74쪽
알맹이 마무리			76~81쪽



부록

읽기이해 문제 정답 / 교사용 평가 기록지



시작하기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부터 선생님, 친구들과 교과서 속 여러 글을 읽으며 재미있는 읽기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오늘은 여행을 떠나기 전, 먼저 나의 읽기 실력을 알아볼게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글이 하나 보여요.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제목부터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너무 빠르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숨 한 번 쉬고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한 시간은 1분



바다거북

바닷속을 헤엄치는 바다거북을 본 적이 있나요? 바다거북은 팔과 다리가 지느러미 모양이라서 헤엄을 잘 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입으로는 물풀이나 해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앵무새같이 구부러진 입으로 질긴 먹이도 잘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바다거북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이 우리가 버린 비닐봉지나 풍선을 해파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은 한번 삼킨 먹이를 뱉을 수 없어서 몸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몸 안에 쌓인 쓰레기는 바다거북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바다거북을 지키는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닐봉지나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을 줄입니다. 대신에 천 가방이나 대나무 빨대를 사용합시다. 일회용품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 갈 때, 쓰레기봉투를 챙겨갑시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치우고 돌아옵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읽은 곳까지 // 표시해보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이 읽은 “바다거북” 사진이에요.
글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거북과 닮았나요?



오늘의 도전 날짜

월

일

나의 기록을 아래 적어보세요.



내가 잘한 부분에 표시해보세요.

의미를 잘 살려 띄어 읽었다.

글을 잘 이해하며 읽었다.



알맹이와 함께 공부를 마친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읽기 목표를 세워보세요.

Blank area for writing reading goals and reflections.

(예) 나는 일주일에 3번 '알맹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만
이

1

일차

글의 내용 간추리기(1)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ㄴ, ㅈ’가 오면 ‘ㄱ, ㅃ, ㄸ, ㄴ, ㅉ’로 읽어요.

욕심 → /욕심/

듣거나 /듣거나/

봅시다 /봅시다/

찾습니다 /찾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글을 간추리는 법

듣거나 읽은 내용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을 간추려 쓰면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글을 간추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설명하는 글에서는 먼저 중심 문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중심 문장을 연결해 전체 글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주장하는 글에서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여 간추립니다. 이야기 글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합니다. 사건이 여러 장소에서 일어난다면 장소의 변화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글인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간추려 **봅시다**. 어느 더운 여름에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던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에게 편잔을 듣습니다.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려고 느티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오후가 되어 나무 그늘이 움직이자 총각은 그늘을 따라 영감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총각은 마을 사람들까지 그늘로 데려왔습니다. 영감의 집은 총각과 마을 사람들로 꽉 **찾습니다**.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마을을 떠났고 총각과 마을 사람들은 나무 그늘을 쉼터로 사용했습니다.

글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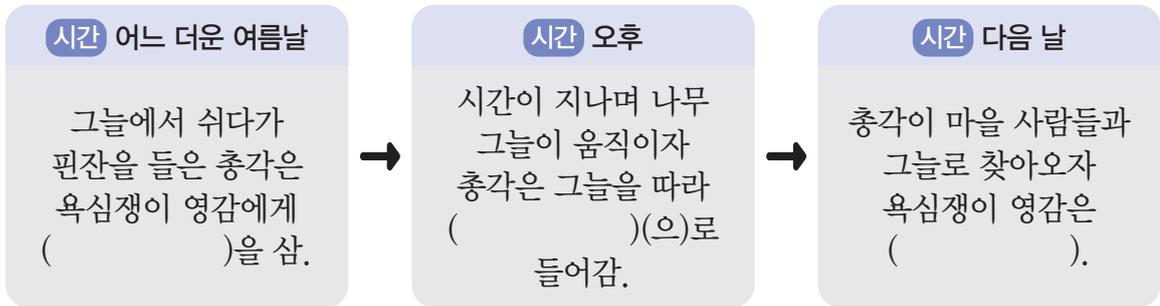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해 보세요.

- 1) 설명하는 글은 중심 문장을 찾아 글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
- 2) 주장하는 글은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정리합니다. ()

2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3 다음 글을 알맞게 간추린 사람을 고르세요. ()

우리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거나 씻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도 하지요. 그런데 머지않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부족 국가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알아보시다. 양치할 때는 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누칠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 ① 은지: 물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 ② 영미: 물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 ③ 소희: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합시다.
- ④ 상우: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많이 갑니다.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킵시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높은 → /노픈/

그림이 /그리미/

없으면 /업쓰면/

뜻이 /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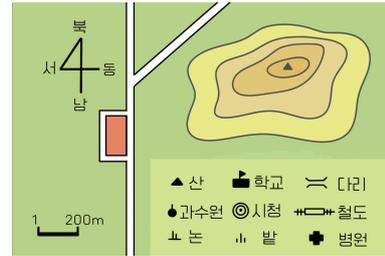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지도의 요소

지도는 우리가 사는 지역을 작게 줄여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작게 그린 **그림이** 모두 지도는 아닙니다. 지도는 정해진 약속에 따라 그려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도의 기본 요소라고 합니다. 지도의 기본 요소는 방위, 기호, 축척, 등고선입니다. 이 중 방위와 기호를 알아보시다.



첫째, 방위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방위는 방위표로 나타냅니다. 방위표를 보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에 방위표가 **없으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입니다.

둘째, 기호는 땅의 모양이나 건물의 모습을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지도를 보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달라져 불편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약속하여 정한 것입니다. 기호는 실제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고 색깔에 따라 특징이 있습니다. 기호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다면 범례를 보면 됩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보기

작게, 크게, 약속, 정도

지도는 우리가 사는 지역을 () 나타낸 그림이다.

지도는 정해진 ()에 따라 그려야 한다.

2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그림에 O표시를 해 보세요.

-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 땅의 실제 모습을 줄여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 학교, 하천, 길 등을 알아보기 쉽게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



()



()

3 단어와 뜻을 알맞게 연결해보세요.

등고선

방위표

범례

•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어 땅의 높낮이를 나타낸 것

• 기호의 뜻을 나타내는 것

• 동서남북을 이용해 위치를 알려주는 표

더 알아보기

축척: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만들어 → /만드러/

시간이 /시가니/

숫아 /소사/

깎여 /까껴/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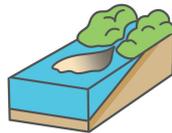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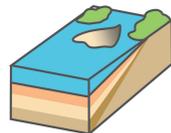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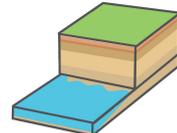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 지층을 아시나요? 지층은 모래, 자갈, 점토들의 퇴적물이 쌓여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룬 것입니다.

지층은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식빵 위에 햄, 치즈, 토마토, 양파, 양상추를 얹고 칼로 빵을 자르면 여러 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물이 흘러가면서 자갈, 모래, 진흙이 강이나 바다에 쌓입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며 먼저 쌓인 층 위에 계속해서 퇴적물이 쌓입니다. 셋째, 퇴적물이 오랜 시간 누르는 힘을 받아 단단하게 굳어지면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층은 시간이 지나면 땅 위로 솟아오르거나 깎여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지층은 바닷가나 산기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갈, 모래,
진흙이 쌓임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물이 계속 쌓임오랜 시간
누르는 힘을 받음지층이 땅 위로
솟아오르거나 깎여서 보여짐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_____(이)라고 한다.

2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

보기

모래, 자갈, 지층, 진흙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①

물이 흘러가면서 , , 이 쌓인다.

②

먼저 쌓여 있는 층 위에 계속 퇴적물이 쌓인다.

③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누르는 힘을 받아 점점 굳어져

이 만들어진다.

④

지층은 땅 위로 솟아오르거나 깎여서 보이게 된다.

3 지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써 보세요.



오늘의
읽기규칙



ㅎ이 ‘ㄱ, ㄷ, ㅈ’와 만나면 ‘ㅋ, ㅌ, ㅊ’으로 읽어요.

궁화 → /구과/

조작하는 /조자카는/

행복한 /행보칸/

않도록 /안토록/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박물관 가는 날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으로 현장 체험 가는 날이다. 버스를 타고 인천어린이 박물관으로 ㉠출발했다. 전시장 앞에 ㉡도착했을 때 안내원께서 안내 사항을 알려주셨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어린이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물관은 문화 탐구 전시장부터 공룡 탐험 전시장까지 총 7개의 전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식 박물관입니다.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나무 목걸이 색칠하기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을 위해 부채 꾸미기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미술 체험장 앞으로 오면 체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천어린이박물관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나는 친구들과 공룡 탐험 전시장부터 ㉣관람하기로 했다. 체험활동을 잊지 **않도록** 미리 알람도 맞춰놓았다. 오늘 7개 전시장을 모두 보고 돌아가기로 다짐했다. 선생님께서 3시까지 버스 앞으로 모이라고 하셨으니 잊지 말아야겠다.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 정말 기대된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해 보세요.

- 1) 나는 친구들과 문화 탐구 전시장부터 관람하기로 했다. ()
- 2) 4학년은 부채 꾸미기 활동을 할 수 있다. ()

2 다음은 글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알맞게 간추린 것을 고르세요. ()

● 〈인천어린이박물관 관람 안내〉 ●

① 전시관 수	→	8개
② 체험 장소	→	미술 체험장
③ 체험 시간	→	오전 10시
④ 체험 시 유의사항	→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3 ㉠ ~ ㉢ 중 뜻이 반대되는 낱말끼리 알맞게 짝지어 보세요. ()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받아 → /바다/

서랍을 /서라블/

찾을 /차즐/

길을 /기를/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지도

나는 내일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 아무리 멀고 낯선 곳이라도 걱정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지도 읽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지도를 챙기기 위해 **서랍**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지도가 있었다.

“아빠, 여행 갈 때는 어떤 지도를 가져가야 해요?”

“모두 가져와 보렴. 이용 목적에 따라 지도의 종류와 쓰임이 다르단다.”

아빠는 지도의 종류와 쓰임새를 말씀해주셨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나타낸 약도, 길을 **찾을** 때 활용하는 교통지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표시한 안내도 등이 있단다.”

“아빠, 그럼 유명한 관광지 위치를 알려주는 관광 안내도를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도 챙기렴.”

“노선도는 뭐예요?”

“노선도는 버스나 지하철 등이 지나는 길과 정류장을 나타낸 지도란다.”

“지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길도우미를 이용하여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를 활용하여 세계 곳곳을 쉽고 간편하게 볼 수도 있단다.”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지도가 있었다니 신기하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ㅎ’이 모음과 만나면 ‘ㅎ’이 사라져요.

좋아 → /조아/

많은 /마는/

넣어 /너어/

놓아둔 /노아둔/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퇴적암을 만들어요

물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을 운반합니다. 이렇게 모인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에는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가 굳어진 이암, 모래로 이루어진 사암, 자갈이나 모래 등이 섞여져서 만들어진 역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모래들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사암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 퇴적암 모형 만들기를 해 봅시다. 먼저 모래를 종이컵에 반 정도 채운 다음 물 풀을 **넣어** 나머지 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잘 섞어 모래 반죽을 만들고, 다른 종이컵으로 모래 반죽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루 동안 **놓아둔** 다음 종이컵을 찢어 모래 반죽을 꺼내어 관찰합니다. 종이컵으로 누르는 힘 때문에 모래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서로 엉겨 붙어 퇴적암 모형이 됩니다. 퇴적암 모형을 만드는 데 이틀이 걸리지만 실제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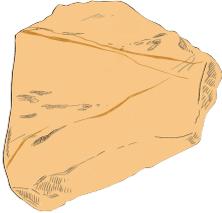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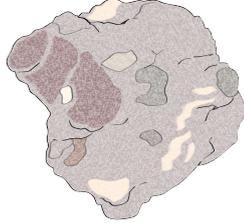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퇴적암의 이름을 써 보세요.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

※ 앞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하며 아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3)

- ㉠ 나무 막대기로 섞어 모래 반죽을 만든다.
- ㉡ 하루 동안 놓아둔 다음, 종이컵을 찢어 모래 반죽을 꺼낸다.
- ㉢ 다른 종이컵으로 모래 반죽을 누른다.
- ㉣ 종이컵에 모래를 반 정도 넣고, 나머지는 ()을/를 넣는다.

2 위의 실험은 퇴적암 모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험의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3 위의 실험 중, ㉣의 빈칸에 들어갈 준비물을 고르세요. ()

- ① 젤리 ② 식용유 ③ 물 풀 ④ 우유 ⑤ 물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ㄴ, ㅈ’가 오면 ‘ㄱ, ㅃ, ㄸ, ㄴ, ㅉ’로 읽어요.

장짐 → /장짐/

오랫동안 /오랜동안/

박수 /박수/

학급 /학급/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느낌을 살려 말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가희가 **오랫동안** 준비한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가희는 잠까지 설쳤습니다. 국어 시간이 되어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 선 가희는 심호흡을 하고 바른 자세로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을 잘 전달하려면 느낌을 잘 살려 말해야 해. 굳은 얼굴은 하지 말고, 밝게 웃어야지.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공손한 말투를 사용해야 해.’

발표를 마치고 친구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나서야 가희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친구들의 발표가 끝나고 학급 대표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생각을 분명하게 전하려면 표정, 몸짓, 말투를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희가 바르게 서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도 가희가 발표한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상모와 경미가 말하였습니다. 많은 친구가 추천하여 가희가 **학급** 대표로 뽑혔습니다. 가희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벅차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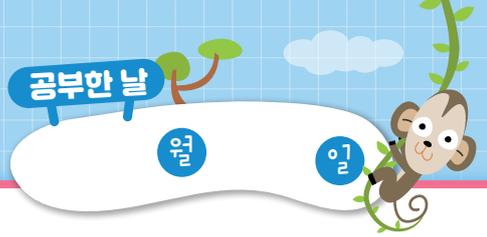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 1) 생각을 잘 전달하려면 ()을/를 살려 말해야 한다.

- 2)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

- 3) 생각을 분명하게 전하려면 표정, (), 말투를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2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자세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며 굳은 표정으로 발표합니다.
- ②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는 친근하게 반말을 씁니다.
- ③ 친구들에게 말할 때는 흥미를 갖도록 유행어를 많이 씁니다.
- ④ 동생들에게 말할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3 글에 나타난 가희의 마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떨리다
- ② 긴장되다
- ③ 당황하다
- ④ 벅차오르다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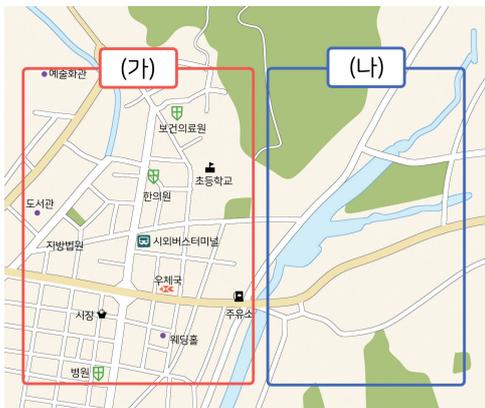
1) 지도에서 초록색은 ()을/를 나타낸다.

2) 지도에서 파란색은 ()을/를 나타낸다.

2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편의 시설이 많다.
- ② 군청, 터미널 등이 있는 곳에는 교통이 편리하다.
- ③ 논과 밭이 많고 도로가 적은 곳은 지도가 단순하다.
- ④ 전원주택단지는 한적하고 살기 좋아 지도가 복잡하다.

3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가)는 논과 밭이 많고 도로가 적다.
- ② (나)는 시청,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등이 있다.
- ③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복잡하다.
- ④ (나)는 편의 시설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읽어요.

궁민 → /궁민/

박물관 /방물관/

퇴적물 /퇴정물/

이튿날 /이튼날/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서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에 다녀왔습니다.

“아빠, 강화는 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거죠?”

“그건 강화 전역에 걸쳐 박물관처럼 역사적인 문화재나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보존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삼엽충 화석, 고사리 화석, 나뭇잎 화석, 물고기 화석 등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화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해설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죽은 생물체들이 함께 굳어져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 안에는 예전에 살던 생물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밖에 있는 큰 고인돌을 보면서 여쭙보았습니다.

“해설사님, 저기 밖에 있는 고인돌도 화석인가요?”

해설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고인돌은 그냥 퇴적암이에요. 화석이 되려면 생물체 위에 **퇴적물**이 순식간에 쌓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뼈나 이빨처럼 생물체의 단단한 부분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쉬워요.”

해설사의 말을 듣고 나니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죽은 생물체들이 함께 굳어져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2 자연사 박물관에서 본 화석 그림과 화석의 이름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

•

삼엽충 화석



•

•

물고기 화석



•

•

고사리 화석



•

•

나뭇잎 화석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O표를 하세요.

생물의 몸체에 (단단한, 물렁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천천히, 빠르게) 쌓여야 한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ㄴ, ㅈ’가 오면 ‘ㄱ, ㅃ, ㄸ, ㄴ, ㅉ’로 읽어요.

습관 → /습관/

직접 /직접/

경복궁 /경복궁/

삼겹살 /삼겹살/



소리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사실과 의견

사실과 의견의 뜻을 알고 있나요? 사실은 현재에 있는 일이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 책에서 알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토끼는 동물이다. 해바라기는 식물이다.’가 있습니다. 글에서 사실을 찾으려면 글쓴이가 한 일, 본 일, 들은 일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경복궁**에 다녀왔다. 경복궁에서 연못을 봤다. 친구들이 깔깔 웃는 소리를 들었다.’는 모두 사실입니다.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아껴 써야 한다. **삼겹살**은 맛있다.’가 있습니다. 글에서 의견을 찾으려면 글쓴이가 생각하거나 느낌을 표현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화려한 궁궐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경복궁에 또 가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ㄴ, ㅈ’가 오면 ‘ㄱ, ㅃ, ㄸ, ㄴ, ㅉ’로 읽어요.

앞뒤 → /압뽀/

높고 /놉꼬/

밀집 /밀집/

국제 /국제/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인천의 중심지

인천의 중심지를 알아보시다. 중심지는 고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뜻합니다. 중심지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상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합니다.

인터넷이나 지도를 보면 다양한 인천의 중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볼 수 있는 중심지를 크게 5가지로 나눠봅시다. 첫째,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둘째,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은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셋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종합터미널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넷째, 석모도 보문사와 정서진 전망대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다섯째, 제철 단지와 인천항 산업단지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한편,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는 비교적 논과 밭이 많고 사람들이 적어 한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인천의 지도를 보고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보세요.

글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ㄴ, ㅈ’가 오면 ‘ㄱ, ㅃ, ㄸ, ㅆ, ㅉ’로 읽어요.

남작 → /남작/

털밭 /털빤/

특징 /특정/

돋보기 /돋뽀기/



소리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어떤 씨앗일까?

너른 마당과 **털밭**이 있는 검단으로 이사를 온 예진이네 가족들은 마당과 털밭에 어떤 식물들을 심을지 가족회의를 했어요. 예진이네 가족은 호두, 봉숭아, 채송화, 참외 씨앗을 사기로 했어요.

“시장에 가서 씨앗을 사려면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지?” 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진은 얼마 전 과학 시간에 여러 가지 씨앗을 공부한 것이 생각났어요.

“네, 과학 시간에 배워서 씨앗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특징들을 배웠니?”

“씨앗을 **돋보기**로 관찰했는데, 크기가 다양했어요. 호두 씨앗은 오백 원짜리 동전 만큼 크고 채송화 씨앗은 아주 작았어요. 모양도 다양해요. 참외 씨는 가늘고 **납작**하지만, 봉숭아 씨앗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씨앗마다 색깔도 다양했어요. 무척 신기했어요.”

“우리 예진이가 이렇게 다양한 씨앗의 생김새를 알고 있으니 예진이만 믿으면 되겠는걸.”

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금줄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ㅎ이 ‘ㄱ, ㄷ, ㅈ’와 만나면 ‘ㅋ, ㅌ, ㅊ’으로 읽어요.

어떻게 → /어떠케/

알던 /알턴/

농고 /노코/

많던 /만턴/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까마귀와 감나무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았어요. 병을 앓던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욕심 많은 형은 동생에게 감나무가 있는 허름한 집 한 채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차지했어요.

어느 가을날, 마음씨 착한 동생 집에 까마귀 떼가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감나무에 열린 감을 다 먹어버렸지요.

“내 재산이라고는 이 감나무 하나뿐인데, 너희가 그 많던 감을 모두 먹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까마귀 한 마리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군요. 감을 따 먹었으니 금을 드릴게요.”

까마귀는 동생을 등에 태우고 훨훨 날아 온통 금으로 가득한 산 위에 내려앉았어요.

“금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습니다.”

동생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금을 주머니에 주워 담았어요.

동생이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형은 그 까닭을 물었어요. 동생은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었어요. 형은 동생에게 감나무를 빌려 달라고 사정하였어요. 과연 형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도 동생처럼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금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

- ① 상모 : 형은 동생에게 감나무가 있는 집 한 채만 주었어.
- ② 민지 : 어느 날 까마귀들이 동생 감나무의 감을 모두 먹었어.
- ③ 가희 : 까마귀들은 동생을 금산에 데려가 주었고 동생은 부자가 되었어.
- ④ 경미 : 형은 동생의 감나무를 자기 집에 옮겨 심고 더 큰 부자가 되었어.

2 이야기의 차례에 알맞게 그림의 순서를 정리하세요.

㉠



까마귀가 착한 동생을 등에 태우고 금산으로 데려갔다.

㉡



동생의 집 감나무에 열린 감을 까마귀가 다 먹었다.

㉢



욕심 많은 형은 동생에게 허름한 집 한 채만 주었다.

(- -)

3 이야기 속 형은 욕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형의 성품으로 보아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

- ① 형은 까마귀들이 감을 다 먹자 까마귀들에게 고마워했어요.
- ② 형은 동생에게 금산에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 ③ 형은 금산에서 가져온 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 ④ 형은 까마귀를 타고 금산에 가서 욕심을 부리고 금을 많이 담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ㄴ, ㅈ’가 오면 ‘ㄱ, ㅃ, ㄸ, ㄴ, ㅉ’로 읽어요.

급식 → /급씩/

볼거리 /볼꺼리/

특색 /특썩/

답사 /답싸/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전통시장 답사

선생님께서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답사하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나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부평 종합시장을 답사하기로 했다. 부평종합시장은 부평역에 있어 가깝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장에 가는 방법과 **특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그리고 답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이제 어머니께 허락을 구할 차례다. ‘꿀꺽’ 마른침을 삼키며 어머니께 함께 **답사**하자고 말을 건넸다. 이럴 때는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간다.

“답사 계획을 잘 세웠구나. 그래. 주말에 함께 가보자꾸나.”

“와! 엄마, 최고! 답사 준비는 제가 할게요.”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려면 사진기와 필기 도구, 수첩, 휴대 전화가 필요하다. 이제 면담할 분께 미리 연락하고 허락을 구하면 된다. 답사 계획부터 결과 정리까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런 숙제가 많으면 좋겠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하셨어요 → /하서써요/썩을 /싸글/며칠이 /며치리/대답했어요 /대답해써요/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새싹이 났어요

얼마 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강낭콩을 심자고 **하셨어요**. 강낭콩이 자라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썩**을 틈은 다음 심기로 하였습니다. 강낭콩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두 팀으로 나뉘어서 관찰하기로 했어요. 두 팀 모두 페트리 접시에 탈지면을 깔고 강낭콩을 창문가에 올려놓았어요. 그런 다음 우리 팀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꾸준히 조금씩 주었어요. 다른 한 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학교에 왔더니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얘들아, 이리 와 봐! 새싹이 돋아났어.”

꾸준히 물을 주었던 페트리 접시의 강낭콩 껍질이 살짝 갈라졌어요. 그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낭콩 새싹이 나지 않은 쪽은 왜 그럴까?”

가희가 큰소리로 **대답했어요**.

“강낭콩이 물을 못 먹어 갈증이 나서 그래요.”

선생님께서 웃으셨어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ㅌ, ㅈ’가 오면 ‘ㄱ, ㅃ, ㄸ, ㅆ, ㅉ’로 읽어요.

물고기 → /물꼬기/

반갑게 /반갑게/

조심스럽게/조심스럽게/

욕조 /욕조/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파란 물고기

현우는 부모님께서 출근하시면 집에 늘 혼자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혼자 있는 현우를 위해 작은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바로 파란 물고기였습니다. 동근 어항 속에는 온몸이 파란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파란 물고기를 바라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파란 물고기야, 안녕? 우리 좋은 친구가 되자.”

파란 물고기도 반갑게 지느러미를 흔들며 인사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께서 나가시고 현우는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파란 물고기야, 이제부터 우리 뭐 하고 놀까?”

현우의 말을 듣자 파란 물고기는 물 밖으로 머리를 쭉 내밀고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물놀이하자!”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란 물고기가 말을 하다니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현우는 파란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리고는 욕조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파란 물고기와 한참을 놀다가 보니 어느덧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파란 물고기와 물놀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란 물고기는 어항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현우를 안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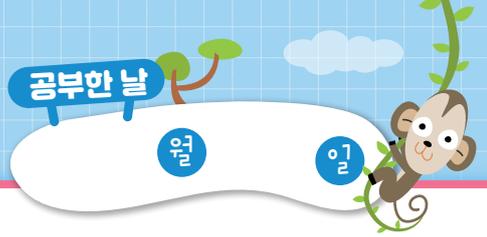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해 보세요.

- 1) 현우는 부모님께서 출근하시면 집에 혼자 있다. ()
- 2) 할머니께서 현우를 위해 파란 물고기를 가지고 오셨다. ()
- 3) 엄마가 오셨을 때 현우와 파란 물고기는 욕조에 함께 있었다. ()

2 이야기 속 사건들을 차례에 알맞게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써야 하는 사건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

- ㉠ 파란 물고기가 물놀이하자고 말했다.
- ㉡ 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현우를 안아 주셨다.
- ㉢ 아버지께서 파란 물고기를 집으로 데려오셨다.
- ㉣ 현우는 파란 물고기와 욕조에서 물놀이했다.

3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지 않게 말한 사람을 고르세요. ()

- ① 혜원: 파란 물고기를 집에 데려온 아버지께 고마웠을 거 같아.
- ② 고은: 부모님이 나가시고 현우 혼자서 집에 있으면 외로웠을 거야.
- ③ 현서: 현우는 파란 물고기를 보고 실망한 거 같아.
- ④ 정아: 욕조에 있던 파란 물고기가 어떻게 어항 속으로 갔는지 궁금해.

오늘의
말차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유산은 → /유사는/

전통음악 /전통음막/

대표적인 /대표저긴/

두레놀이 /두레노리/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인천의 문화유산

문화유산은 조상들이 물려주신 문화 중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에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절이나 궁궐처럼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는 전통음악, 춤, 놀이와 같이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인천의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유형문화재로는 전등사가 있습니다. 전등사는 고구려 때 세워진 절입니다.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부평 두레놀이가 있습니다. 부평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두레 농악입니다. 아무 때나 볼 수는 없고 사람들이 놀이를 시작하면 볼 수 있어서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사용하던 절에 지금도 갈 수 있고, 즐기던 놀이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립니다.

글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 써 보세요.

보기

형태가 있는,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재는 () 문화재이다.

유형문화재는 () 문화재이다.

2 다음 중 유형문화재는 △표, 무형문화재는 ○표를 해 보세요.



은울탈춤 ()



답동성당 ()



전등사 ()



부평 두레놀이 ()

3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문화유산에 예쁜 그림을 그려준다.
- ② 문화유산 주변을 청소한다.
- ③ 문화유산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
- ④ 문화유산을 책으로만 찾아본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한살이 → /한사리/

심을 /시물/

깊이/기피/

물을/무를/



소리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강낭콩 키우기

강낭콩은 꼬투리를 맺고 열매가 익는 시기가 빨라서 식물의 **한살이** 관찰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강낭콩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낭콩 씨앗을 화분에 **심을** 때는 화분 바닥의 물 빠짐 구멍을 망이나 작은 돌로 막은 후 흙을 $\frac{3}{4}$ 정도 넣습니다. 강낭콩 크기의 두세 배 **깊이**로 씨를 심고 흙을 덮은 후 물뿌리개로 **물을** 충분히 줍니다. 이때 식물 이름, 씨를 심은 날짜, 씨를 심은 사람 이름 등을 적은 팻말을 만들어 꽂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강낭콩 싹이 터서 자라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찰 계획을 세워 꾸준히 관찰합니다. 관찰한 결과를 기록장에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사진을 찍어 기록합니다. 또,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자란 정도를 측정해 봅니다.

굵은 선을 색칠하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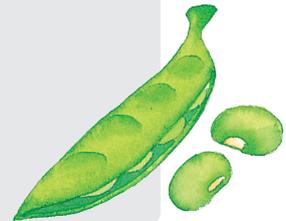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식물이 자라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로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해보세요.

- 1) 강낭콩이 자람에 따라 줄기가 점점 길어진다. ()
- 2) 강낭콩이 자람에 따라 잎의 개수가 점점 적어진다. ()

2 다음 보기를 보고, 화분에 강낭콩 씨를 심는 과정을 순서대로 쓰세요.

- ㉠ 화분에 흙을 $\frac{3}{4}$ 정도 넣는다.
- ㉡ 물뿌리개로 충분히 물을 준다.
- ㉢ 팻말을 꽂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
- ㉣ 화분의 물 빠짐 구멍을 망이나 작은 돌 등으로 막는다.
- ㉤ 강낭콩 씨를 씨 두께의 두세 배 깊이로 심고 흙을 덮는다.



㉣ → → → →

3 강낭콩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화분에 물은 많이 줄수록 좋다.
- ② 화분의 흙은 씨를 덮을 정도만 넣는다.
- ③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
- ④ 화분을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준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ㅌ, ㅊ’가 오면 ‘ㄱ, ㅃ, ㄸ, ㅆ, ㅊ’로 읽어요.

학교 → /학교/

없다면 /업따면/

학생 /학생/

불법 /불뻬/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학교 주변 도로 건널목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다면**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널목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고 교통안전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들을 단속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는 학생들을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열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과속 운전을 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의 위험을 알립니다.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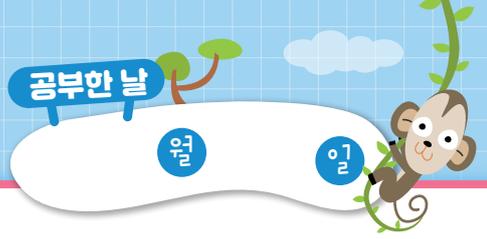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글쓴이는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2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된 자들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교통사고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②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③ 길을 건너려는 학생들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 ④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다음 문장은 제안하는 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O표를 하세요.

학교 주변 도로 건널목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ㅌ, ㅈ’가 오면 ‘ㄱ, ㅃ, ㄸ, ㅆ, ㅉ’로 읽어요.

협동 → /협똥/

직접 /직쩍/

점자 /점짜/

업적 /업쩍/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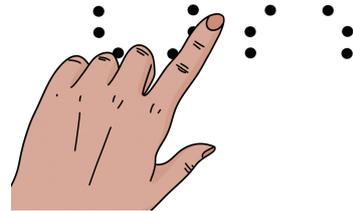
인천의 자랑 ‘박두성’

경미와 상모는 인천을 빛낸 인물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인물 중 박두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박두성 기념관에 찾아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박두성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먼저 박두성의 일생을 알아보았습니다. 박두성은 인천 강화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생원 맹아부에서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박두성의 **업적**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라고 하는 동그랗고 볼록한 여섯 개의 점을 만져서 글자를 읽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 점자밖에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박두성은 최초의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박두성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글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박두성을 조사한 내용을 알맞은 주제로 분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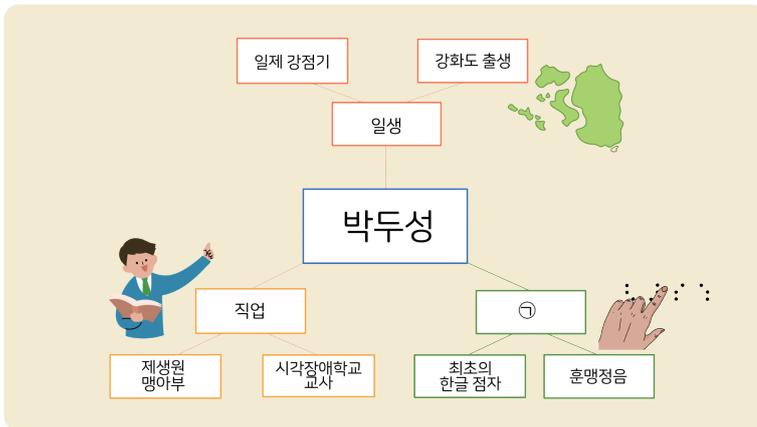
업적, 일생, 장소

- ① 박두성은 인천 강화도에서 태어났다. ()

- ② 박두성 기념관은 인천 강화도에 있다. ()

- ③ 박두성은 한글 점자를 만들었다. ()

2 다음 주제망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업적
- ② 일생
- ③ 직업
- ④ 좋아하는 것

3 다음 중 경미와 상모가 조사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O표를 해 보세요.

- 1) 박두성 기념관으로 현장 체험 가기 ()
- 2) 박두성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 ()
- 3) 박두성의 친척을 찾아가 면담하기 ()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읽어요.

밤~~맛~~ → /밤만/

식물 /싱물/

달립니다 /달림니다/

먹는 /멍는/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

식물의 씨가 싹 터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물의 한살이’라고 합니다. 여러 식물 중 한 해 동안 한살이를 거치는 식물을 한해살이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한해살이 식물에는 ‘벼’가 있습니다. 벼씨에서 싹이 트고 뿌리와 잎이 나며 줄기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달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바로 벼의 열매를 다듬은 것이지요.

여러해살이 식물은 한해살이 식물과 다르게 겨울이 되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듬해에도 새순이 돋아납니다. 이것을 몇 해 반복하여 어느 정도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가 매년 맛있는 감 열매를 선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해살이 식물과 여러해살이 식물은 씨가 싹 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해살이 식물은 한 해만 살며 열매를 맺고 죽지만, 여러해살이 식물은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일을 반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글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써 보세요.

① 식물은 () 을(를) 되풀이하면서 대를 이어간다.

② 식물의 () 기간에 따라 한해살이 식물과 여러해살이 식물로 나눌 수 있다.

답:

2 벼의 한살이 모습을 순서대로 쓰세요.



3 여러해살이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한살이를 반복한다.
- ② 봄에 싹이 터서 그해에 열매를 맺고 죽는다.
- ③ 겨울에도 죽지 않고 이듬해에 새순이 나온다.
- ④ 싹이 터서 몇 년 정도 자란 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ㄴ, ㅈ’가 오면 ‘ㄱ, ㅃ, ㄸ, ㄴ, ㅉ’로 읽어요.

학자 → /학짜/

문자 /문짜/

목구멍 /목꾸멍/

쉽고 /쉽꼬/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한글의 우수성

여러분, 한글이 세계 여러 **학자**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 한글을 우수한 문자라고 하는지 알아보시다.

첫째,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모음자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자음자는 입, **목구멍**, 혀의 모양을 본떠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의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써서 다양한 자음자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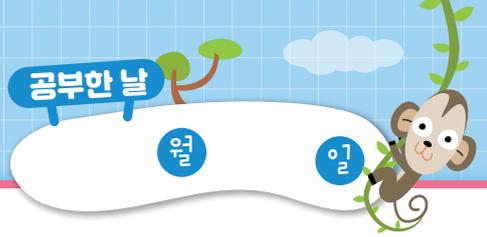
둘째, 적은 수의 문자로 많은 소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음자와 모음자의 조합으로 다양한 낱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따로 익혀야 하는 문자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반면에 한글은 24개의 문자만 익히면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한글의 우수한 특성을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

- ① 민지 :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다.
- ② 상모 : 적은 수의 문자로 많은 낱말을 적을 수 없다.
- ③ 가희 : 자음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써서 만들었다.
- ④ 경미 : 모음자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을 뜻한다.

2 한글의 자음자는 무엇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는지 고르세요. ()

- ① 동물의 모양
- ② 중국 문자
- ③ 입, 목구멍, 혀의 모양
- ④ 하늘, 땅, 사람

3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가) 부분에서 설명하는 자음자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

자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ㄱ, ㄴ, ㄷ, ㅅ, ㅇ’의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가)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써서 자음자를 만들었습니다.

- ① ㅍ
- ② ㅈ
- ③ ㅊ
- ④ ㅌ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도서관은 → /도서관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니/

책을 /채글/

어린이 /어리니/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나는 공공기관을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책도 빌려주고 책갈피 만들기 행사도 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 책을 빌려 볼 수 있었다. 서점에서는 돈을 내야 책을 살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빌려주는 이유가 궁금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도서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세운 곳이다. 공공기관에는 보건소, 소방서, 행정복지센터가 있다.

공공기관은 주민 전체를 위해 만든 곳이라서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 우리 동네 도서관도 공공기관이라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이 찾는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친구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책을 빌릴 때는 차례대로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리고 빌린 책은 깨끗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활용하는 공공기관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글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세운 곳을

이라고 합니다.

2 다음 중 공공기관으로 알맞지 않은 곳을 고르세요. ()

㉠ 보건소 ㉡ 서점 ㉢ 백화점 ㉣ 소방서

① ㉠, ㉡

② ㉡, ㉢

③ ㉠, ㉣

④ ㉢, ㉣

3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여러 가지 물건을 직접 만지고, 체험해본다.
- ②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최대한 크게 말한다.
- ③ 차례대로 줄을 잘 선다.
- ④ 빌린 물건에 예쁘게 그림을 그린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ㅌ, ㅈ’가 오면 ‘ㄱ, ㅃ, ㄸ, ㅆ, ㅉ’로 읽어요.

없다 → /업따/

봬시다 /봬씨다/

잡기 /잡끼/

접시 /접씨/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용수철저울과 양팔 저울

생활 속에서 물체의 무게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저울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저울 중에서 용수철저울과 양팔 저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용수철저울은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저울입니다. 용수철저울의 고리에 물체를 건 다음 표시 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보며 무게를 잽니다. 물체가 무거운 만큼 용수철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지요.

양팔 저울은 수평 **잡기**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저울입니다.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 본 경험을 생각해봅시다. 무게를 비교하고 싶은 물체를 양쪽 접시에 올려놓고 저울대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접시**가 아래로 내려간 쪽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체이지요. 정확한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게를 알고 싶은 물체를 한쪽 접시에 올린 후 반대쪽 접시에는 추를 올리면서 수평을 만듭니다. 저울대가 수평을 잡았을 때 물체의 무게를 잽니다.

글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ㅎ이 ‘ㄱ, ㄷ, ㅈ’와 만나면 ‘ㅋ, ㅌ, ㅊ’으로 읽어요.

시무룩한 → /시무룩칸/

어떻게 /어떠케/

뽀족한 /뽀조칸/

짐작할 /짐자칼/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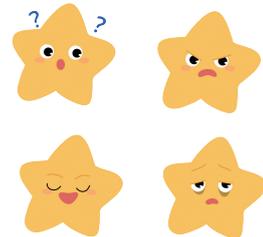
만화 속 인물의 마음

여러분은 만화를 좋아하나요? 이야기를 여러 장면으로 그린 그림에 대화를 넣어 나타낸 것을 ‘만화’라고 합니다. 만화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만화에 나오는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잘 살펴봅니다. 화가 난 표정, **시무룩한** 표정, 어리둥절한 표정 등 다양한 표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 시간에 맛있는 음식이 나와 인물이 환하게 웃으면 기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의 모양을 통해서 인물의 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말풍선 모양은 **뽀족한** 모양, 둥근 사각형 모양, 구름 모양 등이 있습니다. 뽀족한 모양은 화가 나거나 긴장되는 순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글자의 크거나 인물의 뒤편 배경을 자세히 보면서 읽으면 만화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만화를 감상해봅시다.

글을 한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다음 문장 속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그림을 고르세요. ()

밤이 깊어 졸려서 잠자리에 들고 싶을 때

①



②



③



④



2 표정과 마음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

•

지치다



•

•

화가 나다



•

•

궁금하다



•

•

행복하다

3 만화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인물의 표정과 행동

② 말풍선의 모양과 그 안의 내용

③ 글자의 크기와 배경

④ 인물이 입은 옷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ㅌ, ㅈ’가 오면 ‘ㄱ, ㅃ, ㄸ, ㅆ, ㅉ’로 읽어요.

접중 → /접중/

밤길 /밤길/

어렵다면 /어렵다면/

반도록 /반도록/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우리 주변에는 어려울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공공기관을 찾아가야 할까요? 공공기관은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기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중**을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해결합니다. 가로등이 고장 나서 **밤길**이 어두워지면 구청에서 가로등을 고쳐줍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신문에 서 찾아보거나 지역 주민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견학하려는 공공기관에 미리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알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반도록** 합시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공공기관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알맞은 공공기관을 짝지어 보세요.

예방접종을 합니다.

•

소방서

•

우편물을 접수합니다.

•

우체국

•

교통안전을 지킵니다.

•

보건소

•

화재를 예방합니다.

•

경찰서

•

2 다음 설명에 알맞은 공공기관을 고르세요. ()

- 나는 이 곳에서 감기나 전염병을 예방하는 주사를 맞습니다.
- 나는 이 곳에서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① 경찰서

② 병 원

③ 보건소

④ 우체국

3 공공기관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신문으로 찾아본다.

② 지역 주민들과 면담한다.

③ 쇼핑몰 전단지를 살펴본다.

④ 직접 찾아가 견학한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ㅎ’이 모음과 만나면 ‘ㅎ’이 사라져요.

남아 → /나아/

많은 /마는/

쌍여 /싸여/

놓으라는 /노으라는/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콩쥐의 심부름

“흑흑, 큰일이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분리하지?”

잔치에 간 팔쥐 엄마의 무서운 얼굴을 떠올리며 콩쥐는 눈물을 닦았어요. 팔쥐 엄마가 콩쥐에게 몹시 어려운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창고에 아무렇게나 섞인 채 쌍여 있는 콩, 팥, 좁쌀의 혼합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콩쥐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당에 있던 강아지와 고양이가 다가왔어요.

“콩쥐야, 무슨 일이니? 우리가 도와줄까?”

콩쥐는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색깔이 다르니까 손으로 골라내자고 말했어요. 콩쥐와 강아지와 고양이는 열심히 콩, 팥, 좁쌀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혼합물 더미는 그대로였어요. 이대로라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고양이가 외쳤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고양이는 부엌에 가서 구멍의 크기가 다른 체를 가져왔어요. 구멍이 큰 체를 이용해 콩을 걸러내고 나서 구멍이 좀 더 작은 체로 팥과 좁쌀을 분리했어요. 도구를 사용한 덕분에 콩쥐는 무사히 심부름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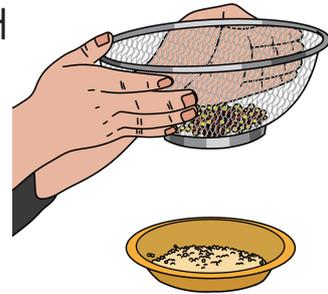
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써 보세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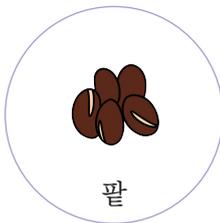
답:

2 콩쥐가 체를 이용해서 콩, 팥, 좁쌀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한 물질의 성질이 무엇인지 고르세요. ()

- ① 알갱이의 모양 ② 알갱이의 무게
- ③ 알갱이의 색깔 ④ 알갱이의 크기



3 콩, 팥, 좁쌀의 혼합물을 쉽게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체를 두 가지 골라 보세요. (,)



- ㉠ 눈의 크기가 콩보다 큰 체 ㉡ 눈의 크기가 콩보다 작고 팥보다 큰 체
- ㉢ 눈의 크기가 팥보다 작고 좁쌀보다 큰 체 ㉣ 눈의 크기가 좁쌀보다 작은 체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ㅌ, ㅊ’가 오면 ‘ㄱ, ㅃ, ㄸ, ㅆ, ㅊ’로 읽어요.

곧장 → /곧장/

학급 /학급/

활동 /활동/

학교 /학교/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학급 규칙 만들기

선생님께서 **학급**회의 시간에 아침 **활동**으로 무엇을 할지 회의하자고 하셨다. 회의 주제에 알맞게 의견을 내는 방법이 고민되었다.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았다. 먼저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떠올렸다. 그리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 의견이 여러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이렇게 의견과 근거로 말할 내용을 정리한 뒤에 내 생각을 말했다.

“보드게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이 보드게임을 좋아하고, 아침에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견을 듣고, 친구들도 어떤 보드게임을 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다. 다수결에 따라 아침 활동으로 보드게임을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드게임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기로 했다. 학급 회의를 통해 내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역시 혼자보다 여럿이 생각을 합치면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학급 회의를 통해 학급 규칙을 만들면 좋겠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학급 회의의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 ②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함께 생각을 모아서, 좋은 의견을 만들 수 있다.
- ④ 나의 의견이 돋보일 수 있다.

2 다음 주제 중 학급회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쓰세요.

- 현장 체험 갈 장소를 고르는 방법 ()
- 아이스크림을 흘리지 않고 먹는 방법 ()
- 가족여행 계획하는 방법 ()



3 학급회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모두 O표를 해 보세요.

- ① 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떠올려 본다. ()
- ② 근거가 없더라도 의견만 정확하면 된다. ()
- ③ 내가 말한 의견이 여러 사람에게 의미 있는지 생각해 본다. ()

오늘의
읽기규칙

‘ㄱ, ㄷ, ㅂ’이 ‘ㄴ, ㄹ, ㅁ’가 만나면 ‘ㅇ, ㄴ, ㄹ’으로 변해요.

습니다 → /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냈습니다 /냈습니다/

합니다 /합니다/



소리 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민지는 학교 앞에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달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민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신호등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학생자치회의 때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학생자치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마침 친구들도 학교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친구들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전교생의 서명을 모아서 인천 시청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주민 참여라고 **합니다**. 민지와 학교 친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앞장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민지와 친구들처럼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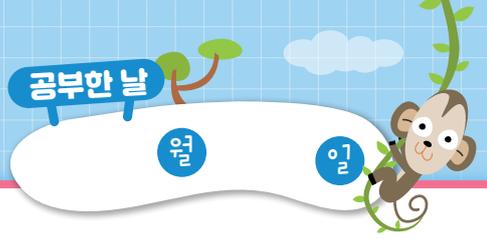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 라고 합니다.

2 민지와 친구들이 활용한 주민 참여 방법을 고르세요. ()

- ㉠ 서명하기 ㉡ 주민 공청회 참여하기
- ㉢ 회의하기 ㉣ 주민 투표하기

- ① ㉠, ㉡ ② ㉠, ㉢ ③ ㉡, ㉣ ④ ㉢, ㉣

3 주민 참여에 대한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가희: 주민 회의를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거야.
- ② 상모: 안전한 등갯길을 위해 어린이 안전 지도를 만들 거야.
- ③ 경미: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시청에서 알아서 도와줄 거야.
- ④ 민지: 서명운동은 많이 못 모을 것 같아서 안 할 거야.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ㅂ, ㄷ, ㅌ, ㅈ’가 오면 ‘ㄱ, ㅃ, ㄸ, ㅆ, ㅉ’로 읽어요.

녹고 → /녹꼬/

바닷가 /바달까/

속상 /속쌍/

녹지 /녹찌/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소금장수와 모래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소금장수와 아들 둘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러 장에 가려는데 둘째 아들이 가지고 놀던 모래주머니를 소금 포대 안에 쏟았지 뭐예요! 소금장수는 귀한 소금을 팔지 못하게 되자 **속상**했어요. 그때,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소금은 물에 **녹고** 모래는 물에 **녹지** 않으니까 물에 녹이면 모래를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소금장수는 소금과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물에 녹였어요. 모래는 물에 녹지 않고 뚱뚱 뜨거나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거름종이를 대고 모래를 걸렀지요.

“자, 이제 소금은 어떻게 분리하지?”

“소금물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고 소금만 남지 않을까요?”

소금장수와 두 아들은 그릇에 소금물을 넣고 열심히 끓였어요. 물이 점점 사라지고 바닥에 흰색 결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둘째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바닥에 흰 것이 소금인가 봐요!”

소금장수는 다음 날 장터에 나가서 다시 소금을 팔 수 있었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소금물이 혼합물인 이유를 고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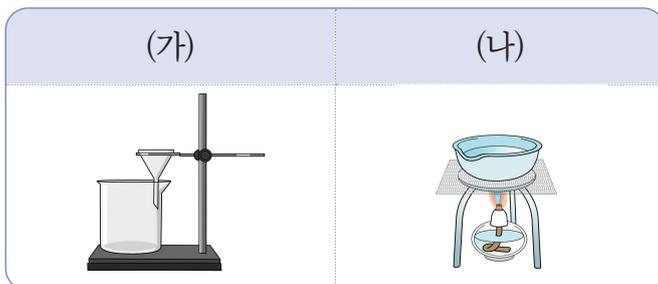
- ① 액체이기 때문이다.
- ②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 ③ 색깔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2 소금장수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다음과 같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이용한 물질의 성질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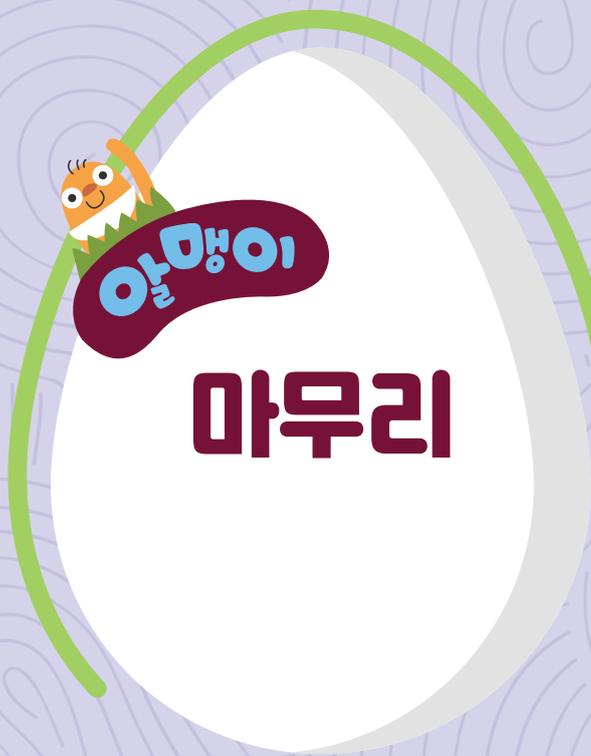
물, 비커, 깔때기, 거름종이

- ① 알갱이의 모양
- ② 물에 녹는 성질
- ③ 알갱이의 크기
- ④ 자석에 붙는 성질

3 다음은 소금장수가 소금과 모래를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의 거름종이에 남아 있는 물질과 (나)에서 가열하여 얻은 물질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



- | (가) | (나) |
|-------|-----|
| ① 모래 | 소금 |
| ② 소금물 | 소금 |
| ③ 모래 | 모래 |
| ④ 소금물 | 모래 |





30일 동안 읽기 여행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선생님, 친구들과 교과서 속 여러 글을 읽으며 읽기 실력을 쑥쑥 높여보았나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의 읽기 실력을 한 번 더 알아볼게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글이 하나 보여요.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제목부터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너무 빠르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읽어 보세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숨 한 번 쉬고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한 시간은 1분



코알라야 힘내!

얼마 전 호주에 산불이 났다는 것을 신문 기사로 보았다. 여러 야생동물 중 코알라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코알라는 움직임이 느리고, 옮겨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산불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코알라의 먹이인 유칼립투스 나무가 기름에 잘 타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한다. 불길을 피한 코알라가 사람이 주는 물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코알라가 사는 숲이 파괴되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나는 코알라를 도와줄 방법을 주제로 친구들과 토의했다. 친구들은 후원금을 모아 구호단체에 보내자고 했다. 우리는 학교 앞에서 일주일 동안 ‘코알라 지원 기금’을 모았다. 우리가 모은 후원금으로 코알라에게 먹이도 주고, 숲도 복구해서 코알라가 야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코알라야 힘내!



아름다운

마무리

잘 읽어보았나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읽은 곳까지 // 표시해보세요.



이 사진은 산불이 나기 전에 숲속에서 찍은 코알라예요.
글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코알라와 닮았나요?



오늘의 도전 날짜

월

일

나의 기록을 아래 적어보세요.



내가 잘한 부분에 표시해보세요.

의미를 잘 살려 띄어 읽었다.



글을 잘 이해하며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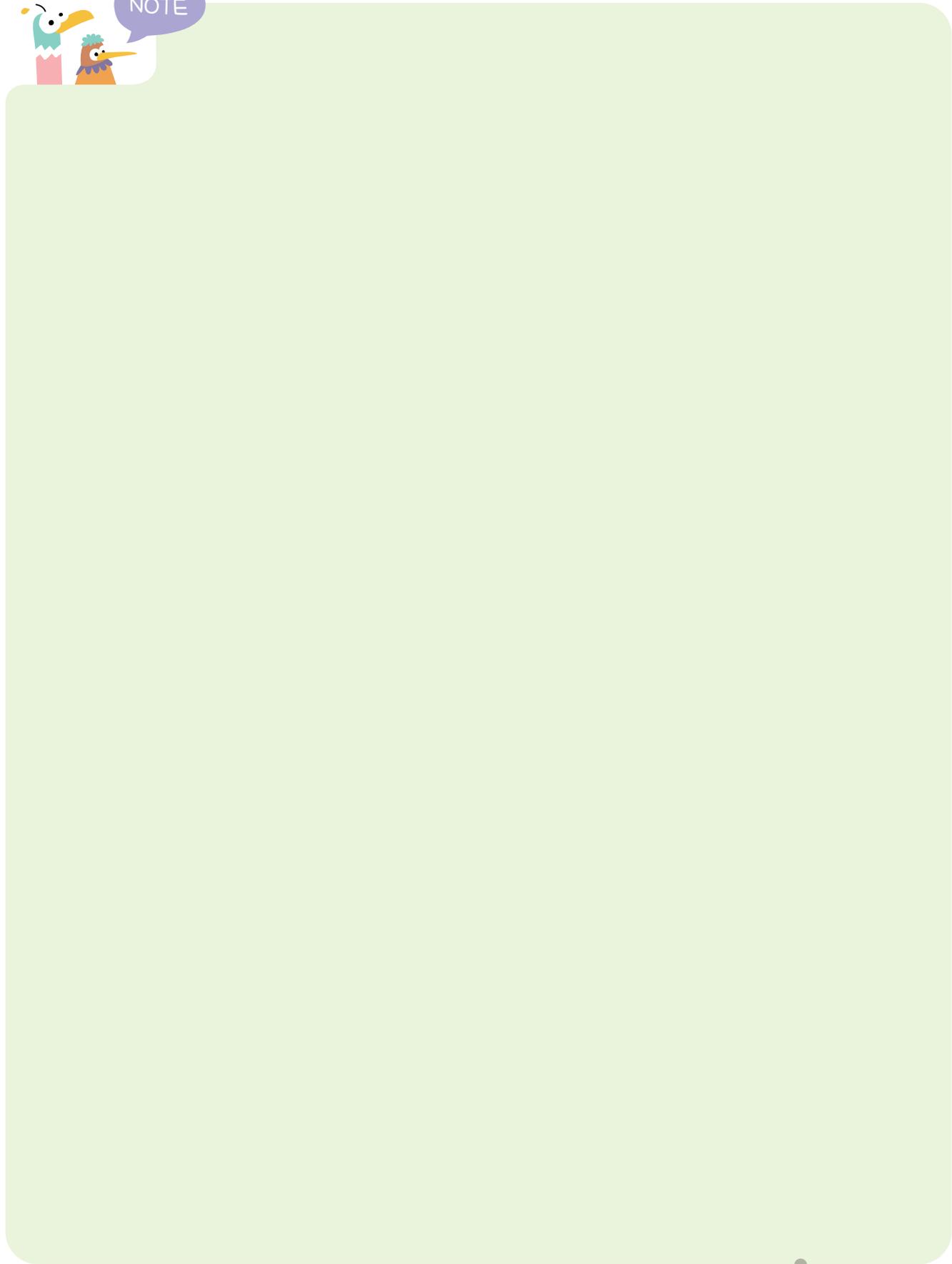


알맹이를 시작하기 전과 후, 내 읽기 실력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response.



읽기 여행을 끝까지 마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부록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라 비 이



정답



16~17쪽

1 글의 내용 간추리기(1)

일차

- 1 O, X 2 나무 그늘, 영감 집, 마을을 떠남.
3 ②



26~27쪽

6 퇴적암 모형 만들기

일차

- 1 이암, 사암, 역암 2 ㉠-㉡-㉢-㉣
3 ③



18~19쪽

2 지도의 요소

일차

- 1 작게, 약속 2 세 번째 그림에 O표
3



28~29쪽

7 상황에 어울리게 말하기

일차

- 1 1. 느낌, 공손한, 몸짓 2 ④
3 ③



20~21쪽

3 지층의 생성 순서

일차

- 1 지층 2 자갈, 모래, 진흙, 지층
3 바닷가, 산기슭



30~31쪽

8 중심지의 특징

일차

- 1 1. 평야, 강이나 바다 2 ④
3 ③



22~23쪽

4 글의 내용 간추리기(2)

일차

- 1 x, o 2 ②
3 ①



32~33쪽

9 화석

일차

- 1 화석 2
- 3 단단한, 빠르게



24~25쪽

5 다양한 지도의 활용

일차

- 1 x, o 2 ③
3



34~35쪽

10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일차

- 1 사실, 의견 2 ②
3 △, ○, ○, △, ○, △



36~37쪽

11 우리 지역의 중심지

일차

1 ×, ○, ○ 2 ①

3 행정- 시청, 교육청 / 상업- 백화점, 대형할인점
산업- 산업단지, 제철단지 / 관광- 박물관, 유적지 / 교통- 공항, 버스터미널



38~39쪽

12 다양한 씨앗의 특징

일차

1 ① 2 ②

3 ○, ×, ○, ×



40~41쪽

13 이야기의 흐름(1)

일차

1 ④ 2 ㉔-㉓-㉒

3 ④



42~43쪽

14 중심지 답사하기

일차

1 답사, 허락 2 ③

3 정리, 사진기, 필기도구, 수첩, 휴대 전화 등



44~45쪽

15 강남콩 키우기(1)

일차

1 ㉑-㉒-㉓ 2 가

3 물



46~47쪽

16 이야기의 흐름(2)

일차

1 ○, ×, × 2 ㉔

3 ③



48~49쪽

17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일차

1 형태가 없는, 형태가 있는

2 ○, △ / △, ○ 3 ②



50~51쪽

18 강남콩 키우기(2)

일차

1 ○, × 2 ㉒-㉑-㉓-㉔

3 ③



52~53쪽

19 제안하는 글

일차

1 교통사고 2 ③

3 제안하는 내용에 O표



20

일차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54~55쪽

- 1 일생, 장소, 업적 2 ①
- 3 2)에 0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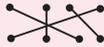


25

일차

인물의 마음 알아보기

64~65쪽

- 1 ③ 2  3 ④



21

일차

여러 식물의 한살이

56~57쪽

- 1 한살이 2 ㉠-㉡-㉢-㉣
- 3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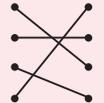


26

일차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66~67쪽

- 1  2 ③ 3 ③



22

일차

한글의 우수성

58~59쪽

- 1 ② 2 ③
- 3 ④



27

일차

혼합물의 분리(1)

68~69쪽

- 1 혼합물 2 ④
- 3 ㉠, ㉢



23

일차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60~61쪽

- 1 공공기관 2 ②
- 3 ③



28

일차

회의하는 법

70~71쪽

- 1 ④
- 2 첫 번째 문장에 0표 / 학급 구성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등
- 3 1) 0, 3) 0



24

일차

물체의 무게

62~63쪽

- 1 저울 2 ㉡
- 3 사과


29
일차

72~73쪽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 1 주민 참여 2 ②
- 3 ②


30
일차

74~75쪽

혼합물의 분리(2)

- 1 ④ 2 ②
- 3 ①

부록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라 비 이



교사용 평가 기록지

사전 평가 교사용 기록지

-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면, 학생은 제목부터 글을 소리내어 읽도록 안내해주세요.
- 교실에서 단체로 평가할 때는 학생이 글을 읽은 후 스스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바다거북

1

바닷속을 헤엄치는 바다거북을 본 적이 있나요? 바다거북은 팔과 다리가 지느러미 모양이라서 헤엄을 잘 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입으로는 물풀이나 해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앵무새같이 구부러진 입으로 질긴 먹이도 잘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바다거북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이 우리가 버린 비닐봉지나 풍선을 해파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은 한번 삼킨 먹이를 뱉을 수 없어서 몸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몸 안에 쌓인 쓰레기는 바다거북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바다거북을 지키는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닐봉지나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을 줄입니다. 대신에 천 가방이나 대나무 빨대를 사용합시다. 일회용품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 갈 때, 쓰레기봉투를 챙겨갑시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치우고 돌아옵니다.

학생 이름		
읽은 날짜	월	일
바르게 읽은 어절 수	어절	

사후 평가 교사용 기록지

-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면, 학생은 제목부터 글을 소리내어 읽도록 안내해주세요.
- 교실에서 단체로 평가할 때는 학생이 글을 읽은 후 스스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코알라야 힘내!

2

얼마 전 호주에 산불이 났다는 것을 신문 기사로 보았다. 여러 야생동물 중 코알라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코알라는 움직임이 느리고, 옮겨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산불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코알라의 먹이인 유칼립투스 나무가 기름에 잘 타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한다. 불길을 피한 코알라가 사람이 주는 물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코알라가 사는 숲이 파괴되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나는 코알라를 도와줄 방법을 주제로 친구들과 토의했다. 친구들은 후원금을 모아 구호단체에 보내자고 했다. 우리는 학교 앞에서 일주일 동안 ‘코알라 지원 기금’을 모았다. 우리가 모은 후원금으로 코알라에게 먹이도 주고, 숲도 복구해서 코알라가 야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코알라야 힘내!

12
22
30
38
48
57
65
72
80
89
97
100

학생 이름		
읽은 날짜	월	일
바르게 읽은 어절 수	어절	





참고문헌

- 교육부(2021). 초등학교 국어 4학년 1학기.
교육부(2021). 초등학교 사회 4학년 1학기.
교육부(2021). 초등학교 과학 4학년 1학기.
대전시교육청(2018) 읽기가 술술~ 읽기 달인 되기: 가나단계 자료.
대전시교육청(2018) 읽기가 술술~ 읽기 달인 되기: 다라단계 자료.
정재석, 장현진(2014) 읽기자신감 4권. 좋은교사운동.
템북(2020) 따스함 실력편 시리즈. 템북.

읽기 유익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알맹이

총괄

김광석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

기획

남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인성교육팀 장학관

서희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인성교육팀 장학사

집필진

김중훈 배움찬찬이 대표

주명희 인천주원초등학교 교사

최순영 인천경서초등학교 교사

강희주 인천도담초등학교 교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읽기 **즐기 3**

